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육류 소비 저감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넋지의 활용

김가람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조활원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조수영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공중들과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인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육류 소비 실천 강도 수준(준거점 설정 효과)과 사회적 증거를 활용한 비교성 넋지 제시 여부가 설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 대한 개인의 동기요인(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과 장애요인(지각된 장애)의 조절효과와 설득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높은 준거점(육류를 먹지 않는 날 3일 제안/일주일)보다는 낮은 준거점(1일)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비교성 넋지가 메시지에 포함되었을 때 육류 소비 저감 행동 설득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둘째, 높은 준거점이 공중 설득에 덜 효과적인 이유는 높은 준거점에 대해 심리적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준거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비교성 넋지를 함께 제시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준거점 설정 효과를 사회적 판단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비교성 넋지의 효과를 검증함은 물론,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넋지 전략의 혼합된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공중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공 캠페인의 보다 효과적인 설득방식을 제시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 WORDS 육류 소비 저감 · 기후 위기 · 준거점 설정 효과 · 비교성 넋지 · 심리적 저항

* 본 연구는 한국광고홍보학회 대학원생 설문조사 지원사업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dyawy1020@naver.com, 제1저자

*** orange@khu.ac.kr, 공동저자

**** sycho@khu.ac.kr, 교신저자

1. 서론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사회는 자원 절약과 더불어 재생 에너지 개발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축산업과 육류소비가 기후 위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써 개인의 육류 소비 저감이 주목받고 있다. OECD와 FAO의 보고서(OECD/FAO, 2021)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육류 소비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 전체의 54%에 해당한다. 육류 소비의 증가는 생물 다양성 및 온실가스의 문제부터 토양 및 수자원의 황폐화 같은 환경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Tilman & Clark, 2014).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의 육류 소비 저감은 지속가능한 식생활로의 전환이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기 없는 월요일’, ‘채소 한끼, 최소 한끼’ 등 일부 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이 실행되고 있다. 캠페인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은 ‘~하지 맙시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 대신에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최소 한 끼나 주 1회로 하자고 제안하며 그 실천범위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써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이 실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준거점 설정 효과(anchoring effect)와 비교성 넛지(comparative nudge)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설득 메시지 구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육류 소비를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 준거점을 설정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휴리스틱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준거점의 제시는 높은 설득 효과를 담보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판단 이론에 근거해보면 과도하게 높은 준거점의 제시는 공중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준거점은 캠페인의 효과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써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을 촉구할 때 적절한 권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메시지 내 제시된 실천 강도 수준의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중의 실천 동기를 높이는 것은 공공 캠페인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를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육류 소비 저감 실천이 이러한

대의에 부합하는 규범적 행동이라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간접적인 강조 전략은 사회적 증거를 활용한 비교성 넛지 전략이다. 많은 사람이 목표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회적 증거를 전달하면 공중이 그 행동을 더욱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Cialdini, 2001). 본 연구는 육류 소비 저감 실천을 설득하는 데 사회적 증거의 제시 효과를 준거점 설정 효과와 함께 살피고자 한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의 한 방편으로 육류 소비 저감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Machovina, Feeley, & Ripple, 2015), 다수의 사람들은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을 윤리적 행동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서치 기업이 수행한 채식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채식을 윤리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¹⁾,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선택한 이유 또한 편리, 건강, 맛 등의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마크로밀엠브레인, 2018; 2021)²⁾.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를 보았을 때 공중들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의 설득을 방해하는 심리적 기제를 심리적 저항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브렘(Brehm, 1966)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행동이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 심리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공중 설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류 저감 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준거점을 탐색하고,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중의 인식적 특성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싼 내외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스톨-클리만과 슈밋(Stoll-Kleemann & Schmidt,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육류 소비에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육류 소비를 줄이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동기요인이 될 수도 있다.³⁾ 본 연구는 그중 두 가지 요인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했다. 우선, 육류 소비 저감 실천에

1) 2018년에는 전체의 53.8%, 2021년에는 전체의 47.2%가 ‘음식을 먹는 것에 동물보호 등의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retrieved from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678&code=0301&trendType=CKOREA>)

2)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이유(중복 답변)에 대한 상위 4개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집에서만큼은 가볍게 식사하고 싶어서’, ‘집안 식사 성향이 채식 위주여서’, ‘체질에 맞아서’, ‘맛있어서’ 등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retrieved from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216&code=0301&trendType=CKOREA>)

관한 외재적 요인이자 장애요인인 ‘지각된 장애’는 채식위주의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 인식을 말한다. 채식 식단의 맛, 채식 관련 식당 인프라 등의 현실적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내재적 요인이자 동기요인인 ‘개인의 자연관’이다. 개인의 자연관은 크게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에 주목하였다(송명규, 2018).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써 육류 소비 저감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금, 육류 소비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 메시지 전략을 탐색하고 공중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준거점 설정 효과와 비교성 넋지를 중심으로 효과적 캠페인 메시지를 탐구하고, 육식 소비 저감 행동의 설득을 저해하는 심리적 저항을 확인하며, 전반적인 설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과 동기요인을 함께 살필 것이다. 본 연구는 육식 소비 저감을 위한 캠페인 구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육류 소비 저감

식품 유통 시스템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그중 토지이용으로 배출되는 양을 제외하고도 축산업과 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식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Poore & Nemeneck, 2018).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 달하는 부분이 가축 생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며(Bailey et al., 2014) 육류 소비량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우려하고 있다. 식재료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소, 닭, 돼지와 같은 육류가 식물성 식재료에

3) 예컨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제반 환경의 부재는 육류 소비 저감에 장애 요인이지만, 합리적 가격과 맛의 배지테리안 음식의 증가는 육류 소비 저감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음식 관련 제반 환경(food environment)’이라는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측면 모두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의 실정과 연구에서 해당 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착안하여 장애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비해 배출량이 높으며(BCFN; Barilla Center for Food&Nutrition, 2018) 특히 양이나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여 소화하는 반추동물들은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다량 배출하고 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사료량과 토지이용을 필요로 한다(Calder, 2012).

육류소비의 증가는 생물 다양성, 온실가스 문제, 토지와 물 자원 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연관되어 있다(Tilman & Clark, 2014; Machovina et al., 2015). 연구들은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한 행동인 동시에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하나라고 주장한다(Godfray et al., 2018). 즉,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간과 생태계에 모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Wolstenholme, 2020). 하지만, 육류소비 저감 행동이 건강을 위한 행동,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최근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순서는 삼림 및 생태계 보전과 관리, 농지와 가축 관리 및 토양의 탄소 격리, 그리고 식생활 개선 및 저배출 연료 활용이다(IPCC, 2023).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중인 방안을 보면 탄소포집,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 혁신 전략을 표방하지만(환경부, 2023), 식생활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육류소비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건강 관련 식생활 개선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실천 방안으로 육류소비 저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축산업은 삼림 벌채, 생태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과 같은 경로를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비롯하여(Steinfeld et al., 2006), 육류 소비와 축산업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미닝아웃’과 가치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채식 위주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윤리적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과 행동에 집중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기 없는 식사가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육류소비와 기후변화를 직접 연관시키는 메시지보다 건강이나 자연적 가치와 같은 사회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비육류 식단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채식 위주의 행동을 친환경과 동물복지와 같은 행동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Boer, Schosler, & Boersema, 2013).

일반 공중에게 육류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Henchion et al., 2014).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의 섭취 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 종교, 윤리 등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 또한, 개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맛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육류 섭취를 줄이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설득이다. 식품 유통 체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수준의 관점이 필요한데, 소비자의 음식 선택은 대체로 미시적 관점과 개인 레벨의 고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de Boer & Aiking, 2011), 드보어(de Boer, 2014)는 육류 소비를 줄이는 행동을 육류소비 횟수 저감, 육류 소비량 축소, 육류 종류 변경, 친환경 육류 구매, 대체육 구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도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도를 실천 빈도 뿐 아니라 실천 카테고리의 범주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행동의도를 측정할 때 육류 소비 저감 실천빈도를 비롯, 요리 재료 구매과정이나 외식 시 육류 메뉴 선택을 줄이고자 하는 식생활 습관 개선 의도, 가능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원 순환을 추구하는 축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을 소비하려는 의도, 식물성 재료로 가공된 대체육을 섭취해 보려는 의도, 그리고 육류 자체를 아예 제한하기는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이 적은 육류로 변경해서 소비하려는 의도로 범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엄격한 채식을 독려하는 것이 아닌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데 이는 ‘리듀스테리언(reducetarian)’ 또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리듀스테리언은 육류를 적게 먹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Katerman, 2016)이며, 플렉시테리언은 유연성을 일컫는 ‘flex’와 채식주의자의 ‘vegetarian’을 합친 용어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육류 섭취를 제한하면서도 여전히 선택적으로 식단에 육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Rosenfeld, 2018). ‘플렉시테리언’은 가변적으로 끼니마다 육류를 먹지 않기로 의식적 결정을 한 사람부터 대체 육류를 포함한 채식 식단을 먹는 사람 모두를 아우른다(Capper, 2021). 마케팅 분야에서도 ‘Hybrid Vegan’, ‘Semi-Vegetarian’과 같은 개념으로 완전한 채식이 아니더라도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채식에 대한 유연한 접근은 소비자의 행동 목적이 건강, 동물권, 환경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Mrinova & Diana, 2019).

2)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 준거점 설정 효과와 비교성 넋지 준거점 설정 효과

캠페인 기획자들은 설득 메시지를 통해 목표 행동을 공중에게 설득하며 이때 목표 행동의 실천 수준을 설정한다. 실천 수준을 과하게 설정하면 독이 될 수도 있으나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캠페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적절한 실천 수준을 제안할 때 고민해야 할 점은 목표 행동의 특성이다. 예컨대, 캠페인의 목표 행동이 재활용 또는 안전벨트 착용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는 해당 행동의 실천에 있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의 경우, 차량 미사용이라는 목표 행동이 개인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많은 요일을 제한한다면 공중의 반발은 클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 역시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실천 수준을 설정해야만 공중의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육류소비 저감에 있어 적절한 실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캠페인 메시지를 접한 공중의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에 관한 이론들은 행동경제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차이켄(Chaiken, 1980)의 휴리스틱-체계적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 HSM)과 카너만(Kahneman, 2003)의 시스템1/시스템2 개념이 있다. 이러한 이중 처리 과정 이론들은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라는 점에 주목하여, 인간은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지는 않으며, 직관이나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인지 처리를 시도한다고 설명한다(Stanovich, 2012).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인지적 노력을 적게 들이는 처리 과정을 ‘휴리스틱 처리 과정’과 ‘시스템 1’으로, 인지적 노력을 들여 처리하는 과정을 ‘체계적 처리 과정’과 ‘시스템 2’으로 명명하였다. ‘휴리스틱 처리 과정’과 ‘시스템 1’은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원의 특성(e.g. 신뢰수준 등)이나 정보의 부차적 특성(e.g. 정보의 길이와 같은 메시지의 스타일) 등에 기대어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은 기존 기억체계(e.g. 기존 인식 및 신념 등)를 활용한 연상 작용(association)에 근거한다(Chen, Duckworth, & Chaiken, 1999; Griffith, Kadous, & Young, 2016). 반면, 체계적 처리 과정과 시스템 2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포함하며, 따라서 정보의 출처, 메시지 내용에 대한 숙고 끝에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Chaiken, 1980).

일정 실천 수준이 제시된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에 노출된 공중을 가정해 보자. 공중이

목표행동(육류 소비 저감)에 관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시스템 1(혹은 휴리스틱 처리)을 중심으로 해당 메시지를 처리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스템 2를 중심으로 판단 및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서 높은 실천 수준과 낮은 실천 수준이 제시된 메시지를 비교한다면, 각각의 경우에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1(혹은 휴리스틱 처리)를 중심으로 한 인지처리의 경우, 메시지에 제시된 실천 수준에 대해 준거점 설정 효과(Anchoring effect/heuristic)가 나타날 수 있다. 준거점 설정 효과는 정박 효과, 정박/기준점 휴리스틱 등으로 번역되는데, 메시지가 제시하는 준거점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정한다(Tversky & Kahneman, 1974). 트버스키와 카너만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준거점 설정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UN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을 무작위로 제시한 후 추정하도록 지시했다. 실험 결과, 제시한 준거점이 10%였던 피험자들은 최종적으로 25%라고 답했으며, 준거점이 65%였던 피험자들은 45%라고 답했다. 해당 결과는 인간이 처음 제시된 수치에 얽매어 인지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하은과 서인주(2022)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정도에 미치는 준거점 설정 효과를 살펴보았다. 피험자를 세 개 집단(대조군, 20% 준거점, 60% 준거점⁴⁾)에 무작위 할당하고 집단 간 추가 지불의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60% 준거점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추가 지불 의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인식적 요인들⁵⁾과 함께 구성된 회귀모형에서도 60% 준거점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볼 때, 피험자들이 휴리스틱적으로 인지 처리를 할 경우, 높은 실천 수준의 메시지에 노출된 공중은 높은 실천 수준을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스템 2(혹은 체계적 처리)를 중심으로 인지 처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적 판단 이론(Social Judgment Theory, SJT)을 통해 의사 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 SJT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준거점(e.g. 태도 등)을 기준으로 설득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설득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Sherif, Sherif, & Nebergall, 1965). 구

4) 대조군의 경우 아무런 메시지 없이 추가 지불 정도를 물었고, 20%와 60% 실험그룹의 경우, 다른 피험자들이 각각 해당 준거점에 해당하는 추가 지불 정도를 응답했다고 제시한 후 추가 지불 정도를 물었다.

5) 환경 관련 지각된 위험성, 소비자 효과성,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 등

체적으로,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준거점에 따라 수용 범주(latitude of acceptance) 또는 거부 범주(latitude of rejection)가 달리 형성되며, 설득 메시지가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동화효과(assimilation) 또는 대조효과(contrast)가 발생한다고 제시한다(Eagly & Telaar, 1972). 즉, 설득 메시지가 수용 범주에 들어오면 동화효과가 일어나 설득 메시지의 제시 정도에 나의 태도를 맞추려고 하지만, 거부 범주에 들어오면 대조효과로 인해 오히려 나의 태도가 설득 메시지와 멀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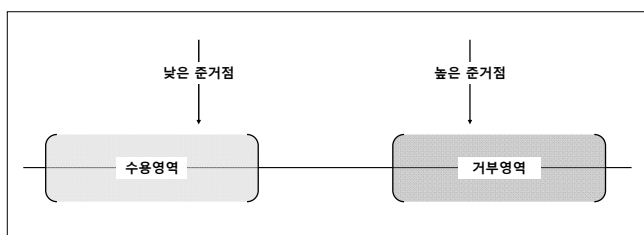


그림 1. 준거점 수준에 따른 수용영역/거부영역 포함 가능성 도식

SJT는 집단 간 양극화가 심각한 이슈(e.g., 환경보호-개발, 진보-보수)의 집단 간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중심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제닝스와 동료들(Jennings et al., 2021)은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행동을 촉구하는 영상에 대한 민주당/공화당 지지자의 설득 효과를 중심으로, 양극화된 집단 간 의견 합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설득 영상에 노출된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위험 인식과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환경운동 참여(지지)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설득 영상에 노출된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플라스틱 저감 정책 지지나 플라스틱 저감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있어서는 설득 영상의 시청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민주당 지지자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당파성이 낮은 인식이나 행동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동화효과가 나타났으나, 당파성이 짙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음을 뜻한다. 즉, 당파성이 낮은 행동의 수용영역과 당파성이 짙은 행동의 수용영역이 다르게 형성되었고, 여기에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용영역과 거부영역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에 전반적인 공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높은 준거점보다는 낮은 준거점이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만약, 낮은 수준의 준거점과 높은 수준의 준거점이 수용

영역에 모두 속하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의 준거점이 수용영역에 가깝기에, 이 경우에도 낮은 준거점 메시지가 적절한 메시지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 행동인 ‘육류 소비 저감행동’은 개인 식습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휴리스틱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 처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임하은과 서인주(2022)의 연구에서처럼 추가적인 비용 지불에 있어 준거점 설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지만, 준거점 설정 효과를 지지하는 다수의 연구는 일반 상식, 숫자 및 확률 추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Furnham & Boo, 2011)에서, 육류 소비 저감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행동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통해 육류 소비 저감 실천 강도에 따라 설득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통제/낮은 준거점/높은 준거점)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저감 실천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휴리스틱적 정보 처리 가정 확인)

〈연구가설1〉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가 낮은 준거점의 실천 강도를 제시할 때 다양한 실천 범주로 나누어지는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하려는 행동 의도⁶⁾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적 판단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 정보 처리 가정 확인)

비교성 넛지

행동경제학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공 캠페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합리성에 주목한 전략이 아닌 비합리성에 근간한 다양한 전략들을 논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넛지(Nudge)’ 전략이다. 넛지 커뮤니케이션은 공중 설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Thaler & Sunstein, 2008). 강준만(2016)은 세간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넛지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유도성, 흥미성, 비교성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그중 사회적 증거(social proof)와 관련이 깊은 비교성 넛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육류 소비 저감을 공중에게 설득하는 것은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공익적 동기가 설득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동기와 달리, 공익적 동기는 얼마나 많은

6)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 대한 논의에 따라, 1)식생활 습관 개선 의도, 2)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3) 대체육 소비 의도, 4)소비하는 육류 종류 변경 의도

사람이 공익적 행동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비교 과정이 설득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많은 사람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간단한 단서는 공중에게 육류 소비 저감이 정의로운 행동임을 강화할 수 있고, 상당한 설득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성 넋지는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SCT)에 근거한 사회적 증거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Shearman & Yoo, 2007). SCT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특성을 가진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Festinger, 1954).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이며 사회적 규범에 반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한다(Stone & Focella, 2011).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공익 목적의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참여 정도가 중요해진다. 즉, 많은 사람이 어떤 행동에 참여한다고 믿으면, 해당 행동은 규범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사회적 증거 전략이다.

시어만과 유(Shearman & Yoo, 2007)는 사회적 증거 전략과 소액 기부 정당화 전략의 효과를 설문조사와 현장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설문조사에서는 사회적 증거 전략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현장 연구의 실제 행동 데이터에서는 사회적 증거 전략의 유의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현장 연구로 얻은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는 사회적 증거 전략이 단순히 기부만 독려하는 메시지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와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서 육류 소비 저감 또한 공익적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이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한다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를 본 수용자의 실천의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연구가설2〉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는 비교성 넋지를 활용할 때,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하려는 행동 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적 증거를 활용한 비교성 넋지의 제시는 앞서 언급한 준거점 설정 효과와 함께 설득 메시지에서 복합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증거를 통한 비교성 넋지 전략은 공중에게 공익적 행동을 실천할 동기를 제공한다. 사회적 증거를 본 공중은 그렇지 않은 공중에 비해 SJT에서 설명하는 거부영역과 수용영역의 정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즉, 사회

적 증거를 통해 실천 동기가 활성화되면 해당 실천에 대한 수용영역은 더욱 넓게, 거부영역은 비교적 좁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준거점 메시지에 노출된 공중일지라도 사회적 증거로 실천 동기가 활성화되면 평균적으로 수용 정도가 넓어져 실천 의도가 사회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3〉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네티지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교성 네티지가 활용되었을 때 준거점 수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3) 장애요인과 동기요인

설득 메시지의 효과는 메시지 자체의 특성 외에도 이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공중의 개인적·사회적 특성 및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toll-Kleemann & Schmidt, 2017). 이에 육류 소비 저감 실천에 있어 지각된 장애를 장애요인으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동기요인으로 설정하여 두 요인이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각된 장애

Beck(1974)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를 지각된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행동에 대한 불편감, 불쾌감, 경제적 부담, 고통, 부작용과 같은 나쁜 결과에 대해 지각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는 건강행위 수행 시 장애물로 작용하여 예방행위에 중요한 영향 요소로 여겨진다(Jans & Becker, 1984).

육류소비 저감 행동은 맛에 대한 즐거움을 줄여야 하고 식단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정보, 지식, 그리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불편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데는 개인의 생리적(입맛, 성격), 정신적(스트레스, 죄책감), 물리적(요리기술, 시간), 인지적(영양지식), 경제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발생한다(de Boer et al., 2017). 채(Cheah, 2020)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육류 소비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 ‘지각된 장애’의 주요 요인은 맛과 관련한 육식의 즐거움이었으며,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육류 소비 저감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입맛과 습관’으로 나타났다(de Barcellos et al., 2010; Hoek et al., 2011).

스톨-클리만과 슈미드(Stoll-Kleemann & Schmidt, 2017)은 질적 분석을 통해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personal),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외적 요인(external factor)로 분류하고 세부 요인마다 행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먼저, 개인적 장애요인은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육식에 대한 정보 부족’과 ‘요리 기술과 레서피 부족’, 감정 측면에서 ‘가치체계 방어’, 습관과 취향 측면에서 ‘입맛과 식사 습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의 특성 측면에서 ‘성실성 부족’, 지각된 행동통제 측면에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꼽았다.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은 문화와 종교적 측면에서 ‘남자에게 고기가 활력의 상징이라는 믿음’, ‘먹이사슬구조에서 살생은 죄가 아님’ 등과, 사회적 규범의 측면에서 ‘고기를 선호하는 주변인’, 사회적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잘못된 육류 소비의 장점과 상징성’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으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낮은 육류 가격’과 ‘동물성 식품 생산을 위한 투자’, 음식 환경 측면에서 ‘주변 인프라 부족’ 등을 장애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 기초한 당뇨병 환자 대상 채식 소비와 행동 수정 관련 연구들(McGuire & Anderson, 2012; Ahmadi Tabatabai et al., 2022)에서 지각된 장애가 건강 증진행위로서 채식 소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개인의 건강을 위한 육류 소비 저감을 살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육류 소비 저감이라는 식생활에 제약이 되는 행동에 있어 지각된 장애의 영향을 밝혔다. 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이 다른 기후변화 관련 대응 행동과 어떻게 구별되는 어려움을 가지는지 조사한 연구(de Boer & Aiking, 2022)에서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은 다른 환경 관련 활동에 비해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소비 감소에 대한 문화적 의미, 정치적 성향, 남성성 또는 사회 계급과 연관된 사람들의 방해 등과 같은 독특한 염려들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으로서 육류 소비 저감을 주류 환경 활동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는 이처럼 개인마다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도를 조절하는 핵심요인의 하나로 장애요인을 탐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4〉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낮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는 공중의 지각된 장애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장애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실천 의도가 감소하여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낮지 요인 간의 실천 의도에 대한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낮은 실천 의도로 수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가 존재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며 다른 생명체는 인간에게 유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Kortenkamp & Moore, 2001).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은 인간의 효용가치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다. 반면, 생태중심주의는 1970년 심층 생태학자들이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다는 개념을 설명하며 알려진 개념으로, 자연에 속한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입장에서 효용가치가 없을지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송명규, 2018). 열대우림의 벌채를 멈추자는 환경 보전을 주장하더라도,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해석과 이유는 다르다(Kortenkamp & Moore, 2001). 예컨대 인간중심주의는 열대우림의 효용(e.g. 인간 질병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가 열대우림에서 발견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열대우림의 벌채를 반대하는 반면, 생태중심주의는 열대우림 벌채가 다양한 생명체의 멸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즉,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비교했을 때, ‘개인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어,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인의 자연관이 생태중심주의에 가까울수록, 환경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명규(2018)는 자연관이 친환경 실천(개인적/집단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개인적 수준의 친환경 실천(절약, 분리수거 등)과 집단적 수준의 실천(환경운동 및 환경 봉사 참여)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의식(자연훼손에 대한 걱정과 인식)을 매개하여 개인적, 집단적 친환경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간중심적 자연관은 환경의식이나 집단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적 수준의 실천에만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관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 행동이라는 실천적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 위기 대응전략으

로서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위의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공중의 생태주의적 자연관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으로서 육류 소비를 줄이려는 의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중심적 자연관이 높을수록, 공중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실천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5〉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의도는 공중의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높은 공중일수록 전반적인 실천 의도가 상승하여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 요인 간의 실천 의도에 대한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높은 실천 의도로 수렴).

4) 심리적 저항

인간은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를 박탈당하거나 위협받는다 고 느끼면 심리적인 저항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절약, 재활용 실천, 자동차 2부제 같은 행동 제한이나 강요되는 상황은 인간에게 심리적 저항을 일으킨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에도 그 호의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Krishnan & Carment, 1979). 이렇듯 사람들은 특정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브렘(Brehm, 1966)은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이론화하였고, 이때의 심리적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e.g., anger)과 부정적인 인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심리적 저항 이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자기 기재형(self-reported) 응답 뿐 아니라, 생리심리학적 측정(e.g., 심박수, 피부 전도도)을 통해서 심리적 저항의 발생을 측정하고 있다. 클레이튼(Clayton, 2022)은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근절 공익광고 메시지 강도(독단적 vs. 암시적)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발생을 살펴본다. 특히 심리적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기재형 측정과 생리심리학적 측정을 함께 고려했다. 연구 결과, 독단적 공익광고가 더욱 강한 심리적 저항을 유발했고, 이는 공중의 반발을 자극하여 전자담배 사용 의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또한, 심박수의 변화 정도를 통해 독단적인 메시지를 접한 공중이 메시지 처리에 적은 인지 자원을 할애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설득 메시지에

방어적으로 반응(회피/반박)하고 있는 생리학적 단서임을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설득 메시지가 행동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저항이 크게 발생하며, 이는 설득 대상에 대한 반발(e.g. 부메랑 효과) 또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득 메시지는 심리적 저항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식습관을 제한하는 행동으로, 기후 위기를 줄이자는 대의가 있더라도 개인은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메시지가 제시하는 실천 수준이 공중의 수용 범주 이상이라면 심리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준거점 설정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단순히 높은 준거점이 심리적 저항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지적 자원을 들여 메시지를 판단하는 체계적 처리 과정이 동반되었을 때, 심리적 저항도 발생 가능하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증거를 통해 실천 수준에 대한 개인의 수용과 거부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적 증거를 통해 육류 소비 저감 실천 동기가 활성화된다면, 설득 메시지로 인한 심리적 저항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6〉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준거점 설정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비교성 넋지 제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의 실천 수준과 사회적 증거 제공이 공중 설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했다. 앞의 논의에 따르면, 심리적 저항은 공중의 설득을 저해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이다. 따라서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따라,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에 대해 공중의 심리적 저항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각된 장애는 심리적 저항의 선행 요인인 ‘자유에 대한 위협’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브렘과 브렘(Brehm & Brehm, 1981)은 특정 행동(e.g.,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제약될 때, 얼마나 많은 자유의 위협을 느끼는지에 따라 저항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정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관련 제약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Rhodewalt & Marcroft, 1988). 예컨대,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를 접한 개인은 육류를 소비를 제한하는 식사의 장애 요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한다. 장애요인은 심리적 저항을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태중심적 자연관을 지닌 공중은 그렇지 않은 공중에 비해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 수용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생태중심적 자연관이 높은 공중은 그렇지 않은 공중에 비해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의도가 높다(송명규, 2018). 생태중심적 자연관이 높은 공중은 행동 자유에 대한 위협을 낮게 인식하고, 심리적 저항도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통해, 설득 메시지의 실천 수준과 사회적 증거의 제시가 심리적 저항을 매개해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조절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7〉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와 사회적 증거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개인의 지각된 장애가 커질수록 줄어들고 전반적인 심리적 저항의 크기는 증가하며,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8〉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와 사회적 증거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개인의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전반적인 심리적 저항의 크기는 감소하며,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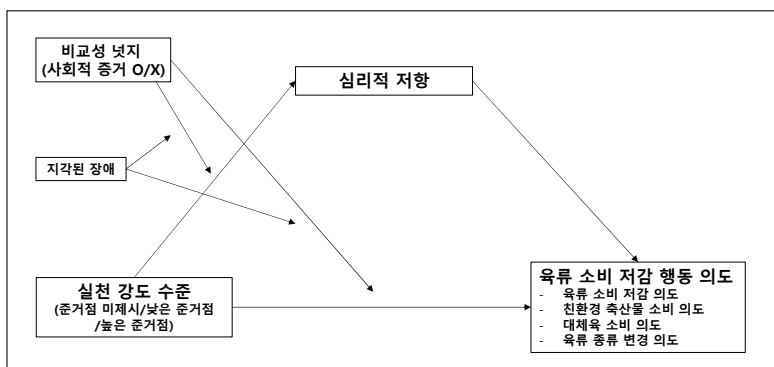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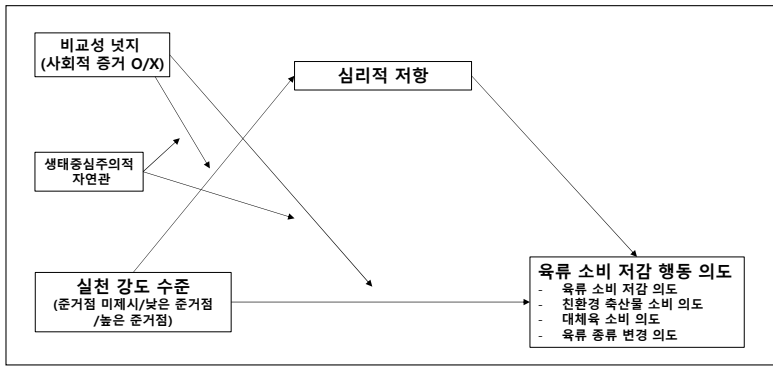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2

4. 연구방법

1) 실험설계

연구를 위해 육류 소비 저감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메시지에서 제안하는 실천 강도(낮은 준거점/높은 준거점)와 사회적 증거(비교성 낮지의 유/무)를 혼합하여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실험 영상 자극물을 제시했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실천행동에 있어 지각된 장애와 심리적 저항,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육류 소비 저감 행동 의도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여, 조절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6가지의 자극물 중 하나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실험 자극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과 지각된 장애 변인은 영상 자극물 노출 전에, 나머지 변인들은 영상을 시청한 후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을 증진하는 메시지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로, 이미 완전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제외하였다.

표 1. 실험 집단별 자극물 구성

집단 구분	자극물 구성	제시 이미지 (순서)
집단 1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육류 소비 저감 필요에 대한 기본 캠페인 메시지	기본 메시지
	준거점 제시 X	
	비교성 낮지 X	
집단 2	낮은 준거점 제시(실천 제안 1일)	기본 메시지 → 준거점 제시(1일)
	비교성 낮지 X	
집단 3	높은 준거점 제시(실천 제안 3일)	기본 메시지 → 준거점 제시(3일)
	비교성 낮지 X	
집단 4	준거점 제시 X	기본 메시지 → 비교성 낮지
	비교성 낮지 O	
집단 5	낮은 준거점 제시(실천 제안 1일)	기본 메시지 → 비교성 낮지 → 준거점 제시(1일)
	비교성 낮지 O	
집단 6	높은 준거점 제시(실천 제안 3일)	기본 메시지 → 비교성 낮지 → 준거점 제시(3일)
	비교성 낮지 O	

2) 실험 자극물 조작

첫 번째 독립변인인 준거점 수준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횟수를 통해 영상물에서 높은/낮은 준거점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준거점 수준을 결정할 때 일주일에 몇 회의 육류 없는 식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은 혹은 높은 수준인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최대 실천 가능한 육류 소비 저감 횟수를 파악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일주일 기준 최대 실천 가능한 횟수는 평균 3.28 회로 나타났다. 이에 3회를 기준으로 낮은 준거점의 조작물은 일주일에 1일 실천, 높은 준거점은 일주일에 3일 실천으로 조작되었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사회적 증거의 제시 유무이다. 비교성 낮지를 적용하여 심리적 저항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영상에 “많은 분께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식하는 Green Day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의 제시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작하였다 <표 2>.

실험 자극물의 형태는 이미지가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제시되는 영상물로 제작하였다. 준거점과 비교성 낮지 메시지가 없는 집단 1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육류 소비 저감 캠페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노출되고, 준거점 및 비교성 내용이 제거되었다.

표 2. 실험 자극물 이미지 내용

기본 메시지		
 <p>육류 소비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p>	 <p>지구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p> <p>-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p>	 <p>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5%가 축산업에서 발생!</p> <p>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p>
 <p>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육류 소비 없는 Green day! 나는 "나"를 위해 그린 합니다 ☺ 육류 소비를 줄이는 Greener가 되어주세요!</p>	 <p>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육류 소비 없는 Green day! 나는 "우리"를 위해 그린 합니다 ☺ 육류 소비를 줄이는 Greener가 되어주세요!</p>	 <p>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육류 소비 없는 Green day! 나는 "지구"를 위해 그린 합니다 ☺ 육류 소비를 줄이는 Greener가 되어주세요!</p>
비교성 넋지	준거점 제시 (1일)	준거점 제시 (3일)
 <p>많은 분께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식하는 Green Day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p>	 <p>일주일 동안, 1일! 육류 소비 없이 채식하는 Green Day에 동참해주세요! 당신도 기후 위기를 막는 Greener가 될 수 있습니다.</p>	 <p>일주일 동안, 3일! 육류 소비 없이 채식하는 Green Day에 동참해주세요! 당신도 기후 위기를 막는 Greener가 될 수 있습니다.</p>

3)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첫째,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송명규(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4개 문항을 "①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③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역코딩), ④인간은 동식물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이다(역코딩)”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지각된 장애’를 문화, 종교, 정치적 성향, 인지부조화와 같은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도출하여 육류 소비 행동에 고려하고 있다(Stoll-Kleemann & Schmidt, 2017).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해 빈도수가 높은 장애 요인을 선별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습관, 맛, 주변 인프라, 주변인 식생활, 요리 실력, 경제적 비용, 편견의 두려움과 같은 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가 육류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①육류 위주의 식사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②채식 위주의 식사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③채식 위주의 식당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⑤채식 위주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요리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⑥채식 위주의 식사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⑦채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면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기 때문이다”.

셋째, ‘심리적 저항’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린지(Lindsey, 2005)를 참고하여 부정적인 인지, 분노, 자유위협, 비난의 측면에서 4개 문항, “①육류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의 내용이 불편했다, ②캠페인에서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③위의 캠페인은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④육류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동의하지 않는다”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종속변인인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도’는 육류 식사 저감 빈도를 비롯하여 친환경 축산물 소비, 대체육 소비, 기후변화에 영향이 적은 육류 소비 의도 등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①육류 위주의 식사를 줄일 것이다, ②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소비할 것이다, ③식물성 재료로 가공된 대체육을 소비할 것이다, ④기후 변화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육류를 소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에 따라 공중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실천 횟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문제1>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자극물 노출 바로 직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육류 소비 저감 실천 빈도를 일주일 중 0일에서 7일 사이에서 고르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는 준거점 설정에 따른 휴리스틱적 판단이 적절한 횟수 판단에 대해 영향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의 문항과는 달리, 심리적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묻기 전, ‘횟수’라는 점에 초점을 둔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의 process macro 및 R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속형으로 측정된 요인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R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과 사후 분석(Duncan, Tukey) 및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1~5(지각된 장애,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3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 1과 2는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낮지의 주효과, 연구가설 3은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나, model 3을 통해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한 번에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가설 7과 8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2를 활용하였다. 모든 process macro 분석에 있어,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5,000번으로 설정하였다.

5. 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측정 변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20~50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총 6개의 자극물 유형에 피험자들이 할당되었으며, 총 500부의 응답이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표 3). 두 문항 이상으로 측정된 연속형 변수로는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지각된 장애’, ‘심리적 저항’이 있으며, 각 변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심리적 저항($\alpha=.92$)과 지각된 장애($\alpha=.72$)의 신뢰도 계수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한편,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측정했던 네 개의 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 문항을 검토한 결과, 생태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두 개의 문항과 인간중심주의에 서로 이질적으로 응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더욱 명확히 측정하고 있는 두 개 문항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alpha=0.79$).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지각된 장애, 심리적 저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chi^2(61, N=500)=226$, TLI=0.919, CFI=0.937, RMSEA=0.074(90% 신뢰구간 0.063-0.084)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험 집단별 응답자 특성

		비교성 넋지 미 제시			비교성 넋지 제시		
		준거점 미 제시	낮은 준거점	높은 준거점	준거점 미 제시	낮은 준거점	높은 준거점
성별	남성 (n)	42	42	42	42	42	42
	여성 (n)	41	42	41	42	41	41
연령대	20대 (n)	20	21	20	21	20	20
	30대 (n)	21	21	21	21	21	21
	40대 (n)	21	21	21	21	21	21
	50대 (n)	21	21	21	21	21	21
총합 (n)		83	84	83	84	83	83
		250			250		
		500					

2)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실천 강도 수준(준거점 미 제시/낮은 준거점/높은 준거점)과 비교성 넋지(미 제시/제시) 요인은 범주형 변수로서 회귀식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딩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범주형 변수의 코딩은 더미 코딩을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의 이유로 effect 코딩을 활용했다. 우선, 3개 이상의 유형을 지닌 요인을 더미 변수화 하면, 준거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각각의 비교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ffect 코딩의 경우, 준거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평균과 전체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 특정 처치 (e.g. 낮은 or 높은 준거점)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effect 코딩은 상호작용항을 고려하는 연구 모형에서 각 요인의 주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의 유무는 모두 effect coding 방식을 택했으며, 실천 강도 수준은 준거점을 제시하지 않은 집단을 -1로 일괄적으로 코딩하고 낮은 준거점의 효과를 살피는 경우(A)에는 낮은 준거점을 1로 높은 준거점을 0으로, 높은 준거점의 효과를 살피는 경우(B)에서는 낮은 준거점은 0으로 높은 준거점은 1로 코딩하였다. 비교성 넋지의 경우, 비교성 넋지가 없는 조건을 -1로, 있는 조건을 1로 코딩하였다.

실천 빈도를 제시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휴리스틱적 준거점 설정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1>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천강도 수준(준거점 미 제시/낮은 준거점/높은 준거점)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일원 배치 분산분석 결과, 실천강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1.992, p<0.001, \eta^2=0.046$). 사후검증 결과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Tukey 사후검증 결과, 준거점 미 제시($M=4.04$)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높은 준거점과 낮은 준거점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Duncan 사후검정 결과, 준거점 미 제시($M=4.04$), 높은 준거점 ($M=3.53$), 낮은 준거점($M=3.12$) 순으로 적절한 실천 빈도를 높게 답했다⁷⁾.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휴리스틱적 준거점 설정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천 강도 수준을 effect 코딩 방식으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 ($F=11.992, R^2=0.042, p<0.001$), 낮은 준거점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낮은 준거점 : $B=-0.444, t=-4.076, p<0.001$ /높은 준거점 : $B=-0.034, t=-0.310, p=0.757$). 이는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준거점 집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음식 저감 실천 빈도의 평균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높은 준거점 집단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하면, 실천 빈도를 제시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 더욱 높은 실천 빈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높은 준거점과 낮은 준거점을 제시한 경우의 차이는 다소 불분명했으나, 낮은 준거점 집단의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의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높은 준거점에서 어느 정도 높은 실천 수준을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나, <연구문제1>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휴리스틱적 준거점 설정 효과가 온전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연구가설1~5>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조절변인(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고려한 각각의 삼원상호작용 모형을 process macro model 3을 통해 분석하였다 (신뢰구간 95%, 부트스트래핑 10,000회). 연구 결과를 최대한 엄격하게 논의하기 위해, <연구가설 1~3>까지의 검증 결과는 같은 종속변인에 관한 결과가 두 연구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실천 강도 수준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낮은 준거점은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낮은 준거점이 제시된 집단은 전체

7) 해당 측정문항은 1-8의 척도로, 1점은 0회/일주일, 8점은 7일/일주일이다. 이에 따라서 환산하면, 준거점 미 제시 집단은 육류없는 식단의 적절한 일수를 평균 3일로, 높은 준거점 집단은 평균적으로 2-3일을, 낮은 준거점 집단은 2일을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을 상회하는 4개 종속변인 값을 보였다(육류 소비 저감: $B=0.830/0.831$,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735/0.784$, 대체육 소비: $B=0.866/0.861$, 육류 종류 변경: $B=0.743/0.739$). 높은 준거점의 경우도 육류 종류 변경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낮은 준거점과 달리 높은 준거점이 제시된 집단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값이 확인되었다(육류 소비 저감: $B=-0.264/-0.257$,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239/-0.239$, 대체육 소비: $B=-0.276/-0.256$). 비교성 넋지 또한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비교성 넋지가 제시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종속변인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육류 소비 저감: $B=0.357/0.365$,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405/0.428$, 대체육 소비: $B=0.372/0.392$, 육류 종류 변경: $B=0.392/0.424$)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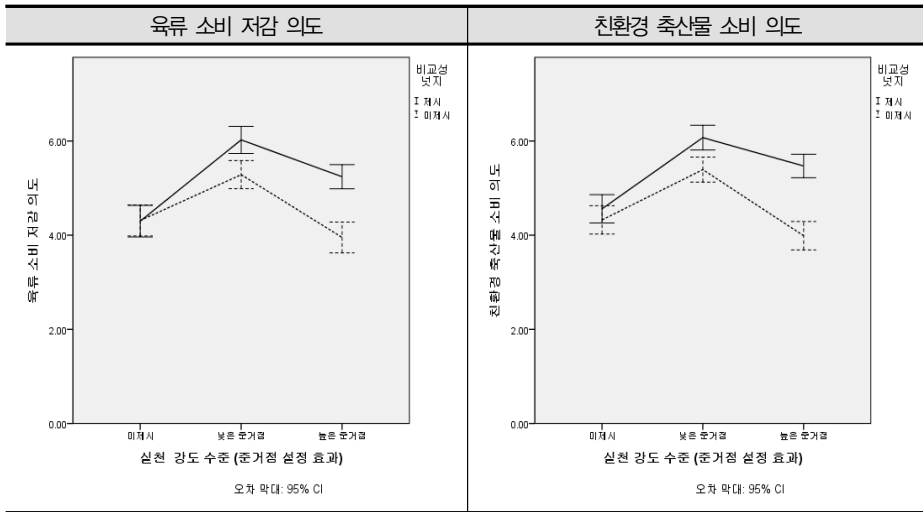
또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높은 준거점과 비교성 넋지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육류 소비 저감: $B=0.287/0.318$,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326/0.358$, 대체육 소비: $B=0.350/0.369$, 육류 종류 변경: $B=0.415/0.455$) <표 5>.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서 상호작용효과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면, 비교성 넋지가 제시된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종속변인 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준거점 집단에서 그 차이가 명확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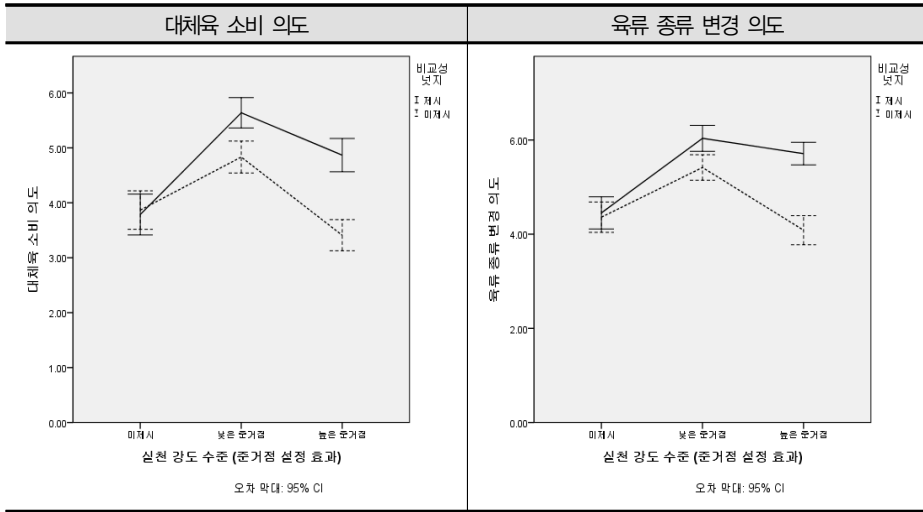
표 4. 실천 강도 수준, 비교성 넋지, 지각된 장애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육류 소비 저감 의도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R^2=.235, p<.001$				$R^2=.261, p<.001$			
	B	SE	<i>t</i>	<i>p</i>	B	SE	<i>t</i>	<i>p</i>
constant	4.860	0.063	76.972	0.000	4.958	0.058	85.345	0.000
낮은 준거점(A)	0.830	0.090	9.195	0.000	0.735	0.083	9.211	0.000
높은 준거점(B)	-0.264	0.089	-2.971	0.003	-0.239	0.082	-2.920	0.004
비교성 넋지(C)	0.357	0.063	5.650	0.000	0.405	0.058	6.972	0.000
A*C	0.091	0.090	1.011	0.313	-0.034	0.083	-0.409	0.683
B*C	0.287	0.089	3.230	0.001	0.326	0.082	3.989	0.000
지각된 장애(D)	-0.164	0.065	-2.518	0.012	-0.058	0.060	-0.966	0.335
A*D	-0.154	0.096	-1.599	0.110	-0.080	0.089	0.902	0.368
B*D	0.192	0.090	2.144	0.033	0.222	0.083	2.696	0.007
C*D	-0.120	0.065	-1.848	0.065	0.044	0.060	0.728	0.467
A*C*D	0.009	0.096	0.094	0.925	0.012	0.089	0.130	0.897
B*C*D	0.114	0.090	1.274	0.203	0.095	0.083	1.152	0.250

	대체육 소비 의도				육류 종류 변경 의도			
	$R^2=.239, p<.001$				$R^2=.251, p<.001$			
	B	SE	t	p	B	SE	t	p
constant	4.409	0.065	67.556	0.000	5.018	0.061	82.242	0.000
낮은 준거점(A)	0.866	0.093	9.275	0.000	0.743	0.087	8.515	0.000
높은 준거점(B)	-0.276	0.092	-3.008	0.003	-0.129	0.086	-1.497	0.135
비교성 넛지(C)	0.372	0.065	5.707	0.000	0.392	0.061	6.417	0.000
A*C	0.075	0.093	0.800	0.424	-0.055	0.087	-0.636	0.525
B*C	0.350	0.092	3.811	0.000	0.415	0.086	4.833	0.000
지각된 장애(D)	-0.053	0.067	-0.786	0.432	-0.034	0.063	-0.541	0.589
A*D	-0.118	0.100	-1.180	0.239	-0.062	0.093	-0.660	0.510
B*D	0.179	0.093	1.927	0.055	0.073	0.087	0.841	0.401
C*D	-0.094	0.067	-1.401	0.162	-0.063	0.063	-1.004	0.316
A*C*D	-0.048	0.100	-0.484	0.629	-0.070	0.093	-0.746	0.456
B*C*D	0.161	0.093	1.735	0.084	0.260	0.087	2.998	0.003

표 5. 실천 강도*비교성 넛지의 상호작용효과 그래프





지각된 장애를 조절변인으로 하는 삼원상호작용효과는 육류 종류 변경 의도(B=0.260)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변화=0.016, $F=5.031$, $p<0.01$). 특히,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넛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지각된 장애가 평균 이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M-SD: $F=1.333$, $p=0.265$ / M: $F=13.930$, $p<0.001$ / M+SD: $F=17.854$, $p<0.001$).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각 조건상 추정된 평균을 활용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표 6>. 구체적으로, 지각된 장애가 낮은 조건에서는 낮은 준거점의 긍정적 영향만이 관찰되었으나, 지각된 장애가 높아질수록 비교성 넛지의 제시 여부와 준거점 수준과의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비교성 넛지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높은 준거점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비교성 넛지가 함께 제시되면 높은 준거점은 육류 종류 변경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추가로,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육류 소비 저감의도와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에 있어서 실천 강도 수준(높은 준거점)과 지각된 장애의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육류 소비 저감: $B=0.287$,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326$)<표 7>⁸⁾. 상호작용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각된 장애가 높을 때 높은 준거점의 부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각된 장애가 높아짐에 따라 실천 강도 수준 제시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8) 해당 그래프는 process macro의 조건 별 추정 평균을 활용하여 작성했다.

표 6. 실천 강도*비교성 낮지*지각된 장애의 상호작용 (DV=육류 종류 변경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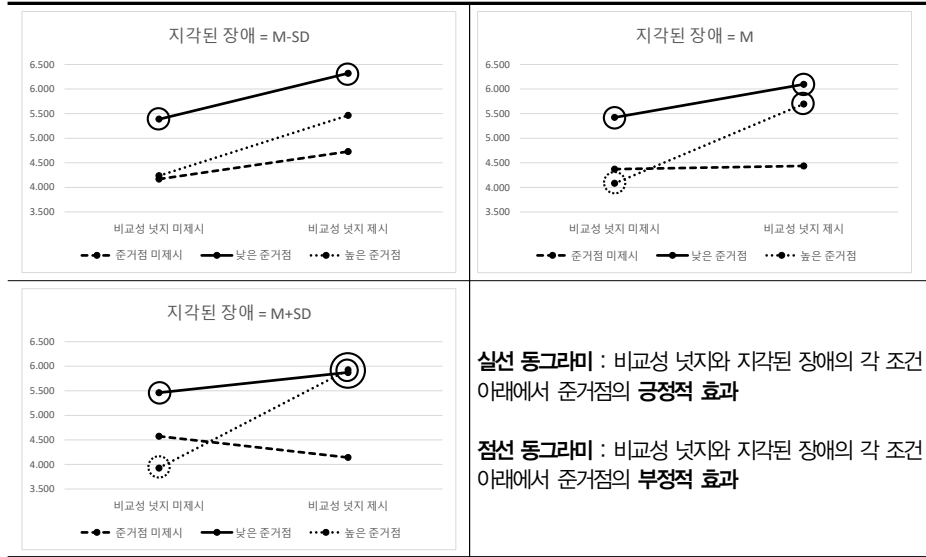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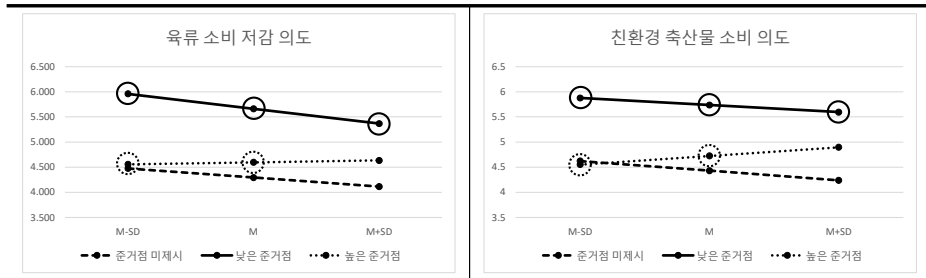


표 7. 실천 강도*지각된 장애의 상호작용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조절변인으로 하는 삼원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주효과는 확인되었다(육류 소비 저감: $B=0.314$, 친환경 축산물 소비: $B=0.292$, 대체육 소비: $B=0.291$, 육류 종류 변경: $B=0.303$) <표 8>. 즉,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높아질수록 육류 소비 저감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동 의도는 상승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극물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피험자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저항에 대한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넛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낮은 준거점*비교성 넛지: $B=0.132$, $p=0.134$ /높은 준거점*비교성 넛지: $B=-0.313$, $p<0.001$). 구체적으로, 비교성 넛지가 제시됨에 따라 높은 준거점이 유발하는 심리적 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⁹⁾ 또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심리적 저항을 매개로 하는 매개모형의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육류 소비 저감 의도: $A^*C \blacktriangleright$ Index=-0.143, BootCI[-0.339, 0.039], $B^*C \blacktriangleright$ Index=0.339, BootCI[.150, 0.541] /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A^*C \blacktriangleright$ Index=-0.068, BootCI[-0.166, 0.019], $B^*C \blacktriangleright$ Index=0.161, BootCI[.063, 0.283] / 대체육 소비 의도: $A^*C \blacktriangleright$ Index=-0.090, BootCI[-0.228, 0.026], $B^*C \blacktriangleright$ Index=0.215, BootCI[.085, 0.372] / 육류 종류 변경 의도: $A^*C \blacktriangleright$ Index=-0.106, BootCI[-0.257, 0.031], $B^*C \blacktriangleright$ Index=0.252, BootCI[.106, 0.414]), 전반적 육류 소비 저감행동 의도에 대한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넛지의 상호작용효과에 심리적 저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A=낮은 준거점, B=높은 준거점, C=비교성 넛지) <표 9>. 즉, 비교성 넛지가 제시될 때 준거점 제시에 따른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었고(특히, 높은 준거점), 심리적 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8. 실천강도 수준, 비교성 넛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육류 소비 저감 의도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R^2=.246, p<.001$				$R^2=.278, p<.001$			
	B	SE	t	p	B	SE	t	p
constant	4.844	0.062	77.648	0.000	4.963	0.057	86.841	0.000
낮은 준거점(A)	0.831	0.088	9.448	0.000	0.784	0.081	9.726	0.000
높은 준거점(B)	-0.257	0.089	-2.896	0.004	-0.239	0.081	-2.946	0.003
비교성 넛지(C)	0.365	0.062	5.856	0.000	0.428	0.057	7.484	0.000
A*C	0.029	0.088	0.328	0.743	-0.067	0.081	-0.830	0.407
B*C	0.318	0.089	3.583	0.000	0.358	0.081	4.412	0.000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D)	0.314	0.070	4.499	0.000	0.292	0.064	4.562	0.000

9) 하지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비교성 넛지 제시 조건에서도 높은 준거점은 전체 대비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저항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A*D	-0.018	0.097	-0.182	0.856	0.023	0.089	0.263	0.792
B*D	-0.052	0.098	-0.530	0.596	0.009	0.090	0.101	0.919
C*D	-0.064	0.070	-0.913	0.362	-0.082	0.064	-1.285	0.199
A*C*D	0.169	0.097	1.742	0.082	0.074	0.089	0.828	0.408
B*C*D	-0.045	0.098	-0.454	0.650	-0.014	0.090	-0.151	0.880
	대체육 소비 의도				육류 종류 변경 의도			
	$R^2=.255, p<.001$				$R^2=.273, p<.001$			
	B	SE	<i>t</i>	<i>p</i>	B	SE	<i>t</i>	<i>p</i>
constant	4.395	0.064	68.406	0.000	5.014	0.060	83.826	0.000
낮은 준거점(A)	0.861	0.091	9.496	0.000	0.739	0.084	8.757	0.000
높은 준거점(B)	-0.256	0.091	-2.799	0.005	-0.112	0.085	-1.314	0.190
비교성 넋지(C)	0.392	0.064	6.103	0.000	0.424	0.060	7.082	0.000
A*C	0.035	0.091	0.384	0.702	-0.087	0.084	-1.029	0.304
B*C	0.369	0.091	4.039	0.000	0.455	0.085	5.351	0.000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D)	0.291	0.072	4.044	0.000	0.303	0.067	4.524	0.000
A*D	0.000	0.100	0.003	0.997	-0.055	0.093	-0.591	0.555
B*D	-0.084	0.101	-0.831	0.406	0.116	0.094	1.232	0.219
C*D	-0.055	0.072	-0.760	0.448	0.046	0.067	0.689	0.491
A*C*D	0.152	0.100	1.525	0.128	0.179	0.093	1.918	0.056
B*C*D	0.021	0.101	0.206	0.837	-0.100	0.094	-1.058	0.291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7~8>은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하는 삼원상호작용효과에서 심리적 저항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심리적 저항에 대한 각 삼원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낮은 준거점*비교성 넋지*지각된 장애: $B=-0.101, p=0.285$ /높은 준거점*비교성 넋지*지각된 장애: $B=-0.074, p=0.401$ /낮은 준거점*비교성 넋지*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B=-0.085, p=0.354$ /높은 준거점*비교성 넋지*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B=-0.017, p=0.859$), <연구가설 7>과 <연구가설 8>은 기각되었다. 이는 심리적 저항에 대한 실천 수준 강도와 비교성 넋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지각된 장애나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수준에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실천강도 수준*비교성 낮자-심리적 저항-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 간접효과 검증

	심리적 저항 (매개변인)							
	$R^2=.188, p<.001$							
	B	SE	t	p				
constant	2.802	0.062	45.125	0.000				
낮은 준거점(A)	-0.505	0.088	-5.758	0.000				
높은 준거점(B)	0.671	0.088	7.636	0.000				
심리적 저항	-	-	-	-				
비교성 낮자(C)	-0.386	0.062	-6.214	0.000				
A*C	0.132	0.088	1.499	0.134				
B*C	-0.313	0.088	-3.561	0.000				
	육류 소비 저감 의도 (종속변인)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종속변인)			
	$R^2=.435, p<.001$				$R^2=.303, p<.001$			
	B	SE	t	p	B	SE	t	p
constant	6.369	0.121	52.793	0.000	5.689	0.125	45.361	0.000
낮은 준거점(A)	0.529	0.078	6.797	0.000	0.635	0.081	7.841	0.000
높은 준거점(B)	0.108	0.080	1.347	0.179	-0.066	0.083	-0.799	0.425
심리적 저항	-0.541	0.039	-14.016	0.000	-0.258	0.040	-6.412	0.000
비교성 낮자(C)	0.126	0.055	2.284	0.023	0.300	0.058	5.212	0.000
A*C	0.105	0.076	1.392	0.165	-0.026	0.079	-0.327	0.744
B*C	0.140	0.076	1.829	0.068	0.261	0.080	3.286	0.001
	대체육 소비 의도 (종속변인)				육류 종류 변경 의도 (종속변인)			
	$R^2=.308, p<.001$				$R^2=.363, p<.001$			
	B	SE	t	p	B	SE	t	p
constant	5.361	0.138	38.765	0.000	6.139	0.125	49.106	0.000
낮은 준거점(A)	0.662	0.089	7.424	0.000	0.513	0.081	6.354	0.000
높은 준거점(B)	-0.032	0.092	-0.347	0.728	0.158	0.083	1.907	0.057
심리적 저항	-0.343	0.044	-7.741	0.000	-0.403	0.040	-10.065	0.000
비교성 낮자(C)	0.231	0.063	3.646	0.000	0.234	0.057	4.080	0.000
A*C	0.084	0.087	0.972	0.331	-0.027	0.078	-0.342	0.733
B*C	0.258	0.088	2.946	0.003	0.298	0.079	3.758	0.000
조절된 매개 지수 : 실천 강도 수준*비교성 낮자 - 심리적 저항 - 육류 소비 저감 의도								
A*C : Index = -0.143, SE = 0.096, BootCI(-0.339 / 0.039)								
B*C : Index = 0.339, SE = 0.10, BootCI(0.150 / 0.541)								
조절된 매개 지수 : 실천 강도 수준*비교성 낮자 - 심리적 저항 -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A*C : Index = -0.068, SE = 0.047, BootCI(-0.166 / 0.019)								
B*C : Index = 0.161, SE = 0.055, BootCI(0.063 / 0.283)								

조절된 매개 지수 : 실천 강도 수준*비교성 낮지 - 심리적 저항 - 대체육 소비 의도
A*C : Index = -0.090, SE = 0.065, BootCI(-0.228 / 0.026)
B*C : Index = 0.215, SE = 0.073, BootCI(0.085 / 0.372)
조절된 매개 지수 : 실천 강도 수준*비교성 낮지 - 심리적 저항 - 육류 종류 변경 의도
A*C : Index = -0.106, SE = 0.073, BootCI(-0.257 / 0.031)
B*C : Index = 0.252, SE = 0.078, BootCI(0.106 / 0.414)

6.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든 현재, 기후 위기는 전 인류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위기이며, 모두가 편의를 조금씩 희생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육류 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비교적 최근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개인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공중을 설득하기 위한 공공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본 연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육류 소비 저감을 공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 전략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의 실천 강도 수준과 사회적 증거를 통한 비교성 낮지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공중 설득 메시지를 탐색하고, 육류 소비 저감 실천에 있어 지각된 장애와 개인의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수준에 따라 설득 메시지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추가로, 육류 소비 저감에 관한 공중 설득을 저해하는 심리적 기제로써 심리적 저항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0.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
〈연구문제〉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미제시/낮은 준거점/높은 준거점)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저감 실천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휴리스틱적 정보 처리 가정 확인)	엄격한 기준의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음
〈연구가설1〉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가 낮은 준거점의 실천 강도를 제시할 때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하려는 행동 의도 ¹⁰⁾ 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적 판단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 정보처리 가정 확인)	지지됨
〈연구가설2〉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는 비교성 넋지를 활용할 때, 육류 소비 저감을 실천하려는 행동 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됨
〈연구가설3〉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넋지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교성 넋지가 활용되었을 때 준거점 수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지지됨
〈연구가설4〉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는 공중의 지각된 장애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장애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실천 의도가 감소하여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 요인 간의 실천 의도에 대한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낮은 실천 의도로 수렴).	일부 지지됨 (DV=육류 종류 변경 의도)
〈연구가설5〉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에 따른 육류 소비 저감 의도는 공중의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높은 공중일수록 실천 의도가 상승하여 실천 강도 수준과 비교성 넋지 요인 간의 실천 의도에 대한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높은 실천 의도로 수렴).	기각됨
〈연구가설6〉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의 준거점 설정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비교성 넋지 제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지됨
〈연구가설7〉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와 사회적 증거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개인의 지각된 장애가 커질수록 줄어들고 전반적인 심리적 저항의 크기는 증가하며,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됨
〈연구가설8〉 설득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실천 강도와 사회적 증거에 따른 심리적 저항의 차이는 개인의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전반적인 심리적 저항의 크기는 감소하며,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육류 소비 저감 실천 의도에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각됨

〈연구문제1〉과 〈연구가설1〉의 결과는 준거점을 제시하는 것이 공익 목적의 설득 메시지
 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문제1〉 결과는 높은 준거점을 제시
 했을 때가 낮은 준거점을 제시했을 때보다 적절한 육류 소비 저감 실천 빈도를 다소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격한 검증 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준거점을 제시할 때 높은 수치의 응답이 유도되었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상반된다(임하은, 서인주, 2022; Blankenship et al., 2008).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본 연구 설계에서 기인했다고 사료된다. 준거점 설정의 휴리스틱적 영향을 검증한 일부 선
 행연구¹¹⁾는 본 연구와 같이 공익성에 관련된 주제가 아니었다. 공익성과 관련된 주제는 응
 답자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높은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즉, 그로 인해 낮은 준거점을 제시
 하나 높은 준거점을 제시하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하은과 서인주(2022)의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된 주제였지만, 타인의 실천 수준을 통해 준거점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타인의 실천 수준은 사회적 증거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만의 영향이라기보다 다른 응답자들이 높은 수치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준거점의 휴리스틱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가설1〉에서는 준거점 제시가 사회적 판단 이론의 입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였고, 그 결과는 SJT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높은 준거점보다는 수용영역에 가까운 낮은
 준거점에서 육류 소비 저감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거부영역에 가까운 높은 준거점에서
 는 준거점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행동의도가 낮았다. 흥미롭게도, 〈연구가설1〉의 결
 과는 〈연구문제1〉의 결과와 상반되는데¹²⁾, 이는 연구방법에서 서술했듯이 〈연구문제1〉과
 관련된 질문은 자극물 제시 바로 이후에, 그 외의 연구가설들에 대한 종속변인은 심리적 저
 항에 관한 문항 이후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극물에서 주
 어진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이뤄진 경우, SJT을 통해 예측할 수 있던 준거점 제시의
 영향이 검증된 것이다. 〈연구문제1〉과 〈연구가설1〉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준거

10) 육류 소비 저감 행동에 대한 논의에 따라, 1)식생활 습관 개선 의도, 2)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 3) 대체육 소비 의도, 4)소비하는 육류 종류 변경 의도
 11) Blankenship과 동료들(2008)의 연구와 같이, 특정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주제(달에 최초 착륙
 할 당시 우주인의 나이 등)에 대해 준거점 설정 효과를 살핀 연구에 한정하고 있다.
 12) 연구가설 1의 경우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높은 준거점이 낮은 준거점에 비해 외려 낮은 설
 득 효과를 보였으나, 연구문제 1은 그 차이가 미미하거나 duncan을 통한 느슨한 사후 검증
 결과로 볼 때 높은 준거점에서 더욱 높은 설득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반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점 제시에 대한 휴리스틱적 정보 처리의 영향보다는 체계적 처리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해당 결과가 준거점 제시에 대한 휴리스틱적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익 캠페인에서 준거점 제시의 휴리스틱적 영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단순히 수치를 높게 제시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의 제시 방법을 고민해볼만 하다.

사회적 증거의 제시를 통한 비교성 넋지의 영향은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을 통해 지지되었다. 비교성 넋지가 제시된 경우 육류 저감 행동의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높은 준거점의 제시는 저감 행동의도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보였는데, 비교성 넋지가 함께 제시되면 피험자의 평균적인 행동의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증거 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한 시어만과 유(Shearman & Yoo, 200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비교성 넋지의 제시 여부가 낮은 준거점에서보다 높은 준거점과 함께 제시됐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사회적 증거는 행동에 관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Cialdini, 2001).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준거점의 제시는 SJT의 거부영역에 가까워 설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비교성 넋지가 제시되면 개인의 거부영역이 축소되거나 거부영역의 기준점을 더욱 높여, 높은 준거점이 거부영역과 겹치지 않는 심리적 과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영향에 대한 가설은 대부분 기각되었는데,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와 지각된 장애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육류 종류 변경 의도에서만 검증되었다. 그 이유로는 <표 6>의 그래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추가 가능하다. 지각된 장애가 보통, 그 이상의 수준에서만 ‘높은 준거점 제시+비교성 넋지 제시’ 조건과 ‘높은 준거점 제시+비교성 넋지 미제시’ 조건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다. 이를 풀어보면, 지각된 장애가 평균 이상이고 비교성 넋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높은 준거점의 제시는 행동의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지각된 장애가 평균 이상이더라도 비교성 넋지와 높은 준거점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장애가 높은 집단일수록 저감 행동의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비교성 넋지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실천 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의한 결과가 육류 종류 변경의도에서만 발견된 것은 다른 것에 비해 가장 실천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³⁾.

13) 종속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육류 소비 저감 의도(M=4.85), 친환경 축산물 소비 의도(M=4.96), 대체육 소비 의도(M=4.40), 육류 종류 변경 의도(M=5.01)로 나타났다.

한편,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삼원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주효과는 확인되었다. 즉,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 육류 저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준거점 수준이나 비교성 넋지 제시 여부와 같은 설득 메시지의 영향과는 큰 관계없는 개인의 일정한 경향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저항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었다. 높은 준거점은 공중의 심리적 저항을 높이나 비교성 넋지와 함께 제시되면 심리적 저항이 상당히 낮아졌다. 심리적 저항은 모든 종속변인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연구가설3>에서 확인되었던 준거점 수준과 비교성 넋지 제시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심리적 저항을 매개하여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전략으로써 비교성 넋지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넋지(사회적 증거 전략)를 중심으로 육류 소비 저감 메시지의 설득효과를 검증했다. 준거점 설정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논의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준거점 제시의 효과를 살펴본 기존 테스트들은 어떤 수치를 앞서 제시한 후 이와 관련성이 적은 질문(e.g., 간디가 죽은 나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나이 등)을 하면 앞서 제시한 수치가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하여 질문에 대한 대답의 수치를 조절할 것이라라는 논지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보 처리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보 처리가 아닌 휴리스틱적 정보 처리로 발생한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거점 설정 휴리스틱 정보처리가 설득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설득 메시지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특정 인물의 나이를 묻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판단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넋지(사회적 증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제언이 가능하다. 우선, 높은 준거점을 제시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을거라는 준거점 설정에 대한 기존 논리는 공중 설득 상황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SJT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높은 준거점을 제시하면 개인의 거부영역에 가까워질 수 있어서 설득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높은 준거점이 제시되었던 집단에서 보다 높은 심리적 저항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육류 소비 저감 설득 메시지를 접한 공중은 단순히 메시지가 제공하는 실천 수준(준거

점)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해당 실천 수준이 나에게 가능한 수준인지를 따지는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중 설득 전략으로서 준거점 설정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휴리스틱적인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체계적 정보 처리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중에게 육류 소비 저감을 독려하는 효과적인 캠페인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일상적 희생이 요구되는 공공 캠페인을 기획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몇 가지 실무적 제언을 제공한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행동을 독려하는 캠페인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매우 습관적이고 개인의 편익이 좌우되는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이루는 것일지라도 개인에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캠페인을 기획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실천 강도를 공중에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공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고 다소 보수적으로 그 실천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SJT에서 제시하는 공중의 보편적인 수용영역과 거부영역을 명확히 파악하여, 공중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의 특성이나 맥락상 설정해야 하는 실천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예를 들어 금연과 같이 담배를 줄이기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해당 행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캠페인의 정당성과 사회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본 연구의 지각된 장애와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관련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지각된 장애가 높은 공중이나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주제에 한해서 메시지에서 높은 준거점의 사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 상 높은 준거점을 제시해야 한다면 비교성 넛지를 메시지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높을수록 관련된 캠페인 설득 메시지에 우호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캠페인 메시지의 설득 효과는 개인의 신념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캠페인 기획자들은 공익적 캠페인 기획에 있어 관련 공중의 신념보다는 장애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육류 소비 저감에 관하여 다양한 행동 들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실무적 의의를 높이고자 했다. 다만, 자극물 제시 이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배치하는 사후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의 실천 의도가 자극물로 인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공중 설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통해 공중의 실천 의도가 자극물 제시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논한다면, 공중 설득의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정확한 제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6). 넛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 유형 분류: 공익적 설득을 위한 넛지의 활용방안. *한국언론학보*, 60(6), 7~35.
- 마크로밀엠브레인 (2018). 채식 식습관 및 채식주의 관련 인식 조사. *트렌드모니터*,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678&code=0301&trendType=CKOREA>
- 마크로밀엠브레인 (2021). 채식 식습관 및 채식주의 관련 인식 조사. *트렌드모니터*,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216&code=0301&trendType=CKOREA>
- 송명규 (2018). 자연관(생태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이 친환경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0(1), 59~85.
- 임하은, 서인주 (2022). 앵커링효과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추가지불정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3(1), 85~105.
- 최정환 (2023, 1월 13일).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56310&menuId=10525>
- Ahmadi Tabatabai, S., Esmailinejad, A., Sadeghi, R., & Zeidabadi, B. (2022). Factors influencing the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n diabetic patients based on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11(1), 51.
- Bailey, R., Froggatt, A., & Wellesley, L. (2014). *Livestock-climate change's forgotten sector*. Chatham House.
- Becker, M. H.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409~419.
- Boer, J., Schösler, H., & Boersema, J. J. (2013). Climate change and meat eating: An inconvenient coupl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3, 1~8.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 Brehm, S. S., & Brehm, J. W. (1981). *Psychological reactance: A theory of freedom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SFN. (2018). *Working toward healthy and sustainable diets: The "Double Pyramid*

Model" developed by the Barilla Center for Food and Nutrition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environmental and nutritional impact of foods.

- Calder, J. S. (2012). Mobilizing human energy. In *State of the world 2008* (pp. 166~179). Routledge.
- Capper, J. (2021). A sustainable future isn't vegan, it's flexitarian. *Veterinary Record*, 188(1), 40~40.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752~766.
- Cheah, I., Shimul, A. S., Liang, J., & Phau, I. (2020). Drivers and barriers toward reducing meat consumption. *Appetite*, 149, 104636.
- Chen, S., Duckworth, K., & Chaiken, S. (1999). Motivated heuristic and systemic processing. *Psychological Inquiry*, 10(1), 44~49.
- Clayton, R. B. (2022). On the psycho-physiological and defensive nature of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72(4), 461~475.
- De Barcellos, M. D., Kügler, J. O., Grunert, K. G., Van Wezemael, L., Pérez-Cueto, F. J., Ueland, Ø., & Verbeke, W. (2010). European consumers' acceptance of beef processing technologies: A focus group study. *Innovative Food Science & Emerging Technologies*, 11(4), 721~732.
- De Boer, J., & Aiking, H. (2011). On the merits of plant-based proteins for global food security: Marrying macro and micro perspectives. *Ecological Economics*, 70(7), 1259~1265.
- De Boer, J., & Aiking, H. (2017). Pursuing a low meat diet to improve both health and sustainability: How can we use the frames that shape our meals? *Ecological Economics*, 142, 238~248.
- De Boer, J., & Aiking, H. (2022). How meat reduction differs from other personal climate actions: Distinct concerns and cultural barriers among EU consumer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01, 104646.
- De Boer, J., Schösler, H., & Aiking, H. (2014). "Meatless days" or "less but better"? Exploring strategies to adapt western meat consumption to health and sustainability challenges. *Appetite*, 76, 120~128.

- Eagly, A. H., & Telaak, K. (1972). Width of the latitude of acceptance as a determinant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3), 388~397. doi:10.1037/h003316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urnham, A., & Boo, H. C. (2011). A literature review of the anchoring effect.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40(1), 35~42.
- Godfray, H. C. J., Aveyard, P., Garnett, T., Hall, J. W., Key, T. J., Lorimer, J., & Jebb, S. A. (2018). Meat consumpti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cience*, 361(6399), eaam5324.
- Griffith, E. E., Kadous, K., & Young, D. (2016). How insights from the "new" JDM research can improve auditor judgment: Fundamental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ological advice.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5(2), 1~22.
- Henchion, M., McCarthy, M., Resconi, V. C., & Troy, D. (2014). Meat consumption: Trends and quality matters. *Meat Science*, 98, 561~568.
- Hoek, A. C., Luning, P. A., Weijzen, P., Engels, W., Kok, F. J., & De Graaf, C. (2011). Replacement of meat by meat substitutes. A survey on person- and product-related factors in consumer acceptance. *Appetite*, 56(3), 662~673.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of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AR6)*.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jpcglclefndmkaj/
https://report.ipcc.ch/ar6syrr/pdf/IPCC_AR6_SYR_SPM.pdf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7.
- Jennings, F. J., Allen, M. W., & Le Vu Phuong, T. (2021). More plastic than fish: Partisan responses to an advocacy video opposing single-use plastics.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5(2), 218~234.
- Kahneman, D. (2003). Maps of bounded rationality: A perspective on intuitive judgment and choice. In T. Frangsmyr (Ed.), *Les Prix Nobel: The nobel prizes 2002* (pp. 449~489). Stockholm, Sweden: The Nobel Foundation.
- Kateman, B. (2017). *The reducetarian solution: How the surprisingly simple act of reducing the amount of meat in your diet can transform your health and the planet*. Penguin.

- Kortenkamp, K. V., & Moore, C. F. (2001). Ecocentrism and anthropocentrism: Moral reasoning about ecological commons dilemma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61~272.
- Krishnan, L., & Carment, D. W. (1979). Reactions to help: Reciprocity, responsibility and react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4), 435~439.
- Lindsey, L. L. (2005). Anticipated guilt as behavioral motivation: An examination of appeals to help unknown others through bone marrow don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4), 453~481.
- Machovina, B., Feeley, K. J., & Ripple, W. J. (2015).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key is reducing meat consump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36*, 419~431.
- Marinova, D., & Diana, B. (2019). Planetary health and reduction in meat consumption. *Sustainable Earth, 2*(1), 1~12.
- McGuire, A., & Anderson, D. (2012). Lifestyle risk factor modification in midlife women with type 2 diabetes: Theoretical modelling of perceived barriers.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0*(1), 49~57.
- OECD/FAO. (20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19428846-en
- Poore, J., & Nemecek, T. (2018). Reducing food's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producers and consumers. *Science, 360*(6392), 987~992.
- Rhodewalt, F., & Marcroft, M. (1988). Type A behavior and diabetic contro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reactance for health outcom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139~159. doi:10.1111/j.1559-1816.1988.tb00011.x
- Rosenfeld, D. L. (2018). The psychology of vegetarianism: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Appetite, 131*, 125~138.
- Shearman, S. M., & Yoo, J. H. (2007). "Even a penny will help!": Legitimization of paltry donation and social proof in soliciting donation to a charitable organization.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4*(4), 271~282.
- Sherif, C. W., Sherif, M., & Nebergall, R. E. (1965).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ement-involvement approach*. WB: Saunders.
- Stanovich, K. E. (2012). Environments for fast and slow think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6(4), 198~199. doi:10.1016/j.tics.2012.01.009

- Steinfeld, H., Wassenaar, T., & Jutzi, S. (2006).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Status, drivers, trends. *Rev Sci Tech*, 25(2), 505~516.
- Stoll-Kleemann, S., & Schmidt, U. J. (2017). Reducing meat consumption in developed and transition countries to counter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A review of influence factors.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7, 1261~1277.
- Stone, J., & Focella, E. (2011). Hypocrisy, dissonance and the self-regulation processes that improve health. *Self and Identity*, 10(3), 295~303.
- Thaler, R. H., & Sunstein, C. R.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안진환 역 (2009).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서울: 리더스북.
- Tilman, D., & Clark, M. (2014). Global diets link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human health. *Nature*, 515(7528), 518~522.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Biases in judgments reveal some heuristics of thinking under uncertainty. *Science*, 185(4157), 1124~1131. doi:10.1126/science.185.4157.1124
- Wolstenholme, E., Poortinga, W., & Whitmarsh, L. (2020). Two birds, one ston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messages to reduce meat consumption and encourag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spillover. *Frontiers in Psychology*, 11, 577111. doi:10.3389/fpsyg.2020.577111

논문투고일: 2023년 08월 31일

논문심사일: 2023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30일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Persuas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educing Meat Consump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Utilizing ‘Anchoring Effect’ and ‘Comparability Nudge’

Garam Kim^{}**

Doctoral Student

Hwalwon Cho^{*}**

Doctoral Candidate

Sooyoung Cho^{**}**

Ph.D., Professor Dept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fficac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educing meat consumption as a viabl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embedding an optimal level of practice intensity within messages (termed the anchoring effect) and employing a comparability nudge strategy (utilizing social evidence) within persuasive messages advocating for reducing meat consumption. Furthermore, the investigation delved into how motivational factor (ecocentric nature view) and barrier factor (perceived barriers) influenced curtailing meat consumption behaviors. The study also examined how psychological reactance to persuasive messages operated as a mediating factor. A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key findings included: first, utilizing a low anchoring point (1 day/week without meat consumption) rather than a high anchoring point (3 days/week) and including a comparability nudge in the message proved more effective in meat consumption reduction. Secondly,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higher anchoring point in terms of public persuasion was ascribed to the psychological reactance. However, thi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raduate Student Survey Support Project of Korean Association of AD & PR (KADPR), funded by Macromill Embrain

^{**} First Author, dyawy1020@naver.com

^{***} Co-Author, orange@khu.ac.kr

^{****} Corresponding Author, sycho@khu.ac.kr

reactance was found to be mitigated when a comparability nudge was concurrently presented.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t contributes by explaining the effectiveness of anchoring effect from a social judgment theory's perspective, reaffirming the potency of comparability nudges, and revealing the combined impact of anchoring effect and comparability nudge strategies. Moreover, the findings extend insights into effectively promoting campaigns particularly in light of potential public reactance.

KEY WORDS Meat consumption reduction • Climate change • Anchoring effect • Comparability nudge • Psychological reactance